

문화나누美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여러분의 전화한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폰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11 + 12 2014 Vol.45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하늘 다리



snowman 추운 겨울, 따스한 눈사람

* 몹시 추워서 눈이 펄펄 오는 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날, 아이들은 밖으로 달려갑니다. 차디찬 몸이지만 따스한 웃음을 짓는 영혼의 친구,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사람 가족, 눈사람 친구들-. 동심은 눈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 때문일까요? 저 눈사람들, 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태양을 바라보고 있네요!



contents


02	포토에세이	38	ASAC Culture Trend
04	11~12월 공연 캘린더	38	테마가 있는 미술 _ 우피치 미술관
	ASAC Special	44	테마가 있는 공연 _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08	인터뷰 _ 안산시의회 의장 성준모	48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와 영화
12	인터뷰 _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이사	54	칼럼 _ 5부. 조절음악치료 실재를 위한 단계설명
16	초대석 _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지혜원 PD		ASAC 문화사업
	ASAC Stage	60	공연 <시티비트>
22	연극 <프랑켄슈타인>	62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25	아침음악살롱 5	64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 작곡가>
27	제2회 ASAC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제작공연	66	공연장 에티켓
29	ASAC 창작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ASAC News
32	2014 크리스마스콘서트	68	단원미술관 겨울기획전
34	뮤지컬 <레베카>	70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 후기
		74	단원미술관 전시일정

발행일 2014 11·12월호(통권 제45호) · 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제종길 편집인 김인숙 기획 기획홍보부 김선광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80-481-4046 팩스 031-481-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디자인 및 제작 경인m&b(주) (031-231-5522~4)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2014. 11 (November)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기획 마당을 나온 암 11:00, 15:00 / 별무리극장
2 기획 청소년극단 발표회 15:00, 18:00 / 별무리극장 대관 상록수연가 18:00 / 해돋이극장 대관 다문화행복음악회 19:00 / 달맞이극장	3 대관 호수여성합창단 꿈나무자선음악회 19:30 / 달맞이극장	4	5 대관 뮤지컬 오즈의마법사 17:00 / 해돋이극장 대관 연극 질풍노도의 역사 19:30 / 별무리극장	6 대관 연극 질풍노도의 역사 16:30, 19:30 / 별무리극장	7 대관 연극 질풍노도의 역사 16:30, 19:30 / 별무리극장	8 기획 아마추어예술단공연 17:00 / 달맞이극장 대관 꼬마버스타요 11:00, 14:00, 16:30 / 해돋이극장 대관 가야금연구회 정기연주회 17:30 / 별무리극장
9 대관 꼬마버스타요 11:00, 14:00, 16:30 / 해돋이극장	10	11	12	13	14 대관 NH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15 기획 연극 프랑켄슈타인 15:00, 19:00 / 달맞이극장 대관 태양금속공업 창립60주년 기념행사 18:00 / 해돋이극장
16 기획 연극 프랑켄슈타인 15:00 / 달맞이극장		19 대관 2014 안산민족예술제 19:30 / 별무리극장	20 기획 맞춤형 공연 20:00 / 해돋이극장 대관 2014 안산민족예술제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제3회 단원구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21 대관 2014 안산민족예술제 19:30 / 별무리극장	21 대관 안산남성합창단창단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대관 안산가족동요대회 13:00 / 별무리극장	22 대관 안산남성합창단창단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대관 안산가족동요대회 13:00 / 별무리극장
23 30 기획 아카데미 꼬마작곡가 발표회 / 별무리극장 대관 타주 제18회 정기공연 17:00 / 달맞이극장	24 기획 맞춤형 공연 10:00 / 달맞이극장 대관 연극 오델로 19:00 / 별무리극장	25 기획 맞춤형 공연 19:30 / 달맞이극장	26 기획 아침음악살롱5 최선배제조양상불 11:00 / 별무리극장 기획 맞춤형 공연 19:30 / 달맞이극장	27 대관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19:30 / 달맞이극장 대관 피아노 정기연주회 19:30 / 별무리극장	28 대관 크리스마스칸타타 19:00 / 해돋이극장 대관 선한사람들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대관 타주 제18회 정기공연 17:00 / 별무리극장	29

2014.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대관 성포고등학교 18:00 / 해돋이극장 대관 햇살유치원 발표회 18:00 / 달맞이극장	2 대관 상록수보건소 건강음악회 19:00 / 해돋이극장 대관 안산상록수클래식기타합주단 정기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3 대관 반월드림오케스트라 19:30 / 달맞이극장	4 기획 엄마의 이력서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제16회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14:00 / 달맞이극장	5 기획 엄마의 이력서 15:00, 19:00 / 별무리극장 대관 안산브라보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6 기획 엄마의 이력서 15:00, 19:00 / 별무리극장
7 기획 엄마의 이력서 15:00 / 별무리극장 대관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14:00, 16:00 / 해돋이극장 대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대관 제16회 안산경민유치원 자선공연 17:00 / 달맞이극장	8 기획 엄마의 이력서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9 기획 엄마의 이력서 19:30 / 별무리극장	10 기획 엄마의 이력서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시립합창단제49회정기연주회 19:30 / 해돋이극장 대관 생각을키우는유치원 자선음악회 18:30 / 달맞이극장	11 기획 엄마의 이력서 19:30 / 별무리극장	12 기획 엄마의 이력서 19:30 / 별무리극장	13 기획 엄마의 이력서 15:00, 19:00 / 별무리극장
14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4:00, 18:00 / 달맞이극장 대관 클래식기타 정기공연 19:00 / 별무리극장	15	16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9:30 / 달맞이극장 대관 클래식기타 정기공연 19:00 / 별무리극장	17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9:30 / 달맞이극장	18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9:30 / 달맞이극장 대관 청석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00 / 별무리극장	19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5:00, 19:00 / 달맞이극장	20 기획 2014 크리스마스콘서트 - 유기구라모토와 친구들 17:00 / 해돋이극장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5:00, 19:00 / 달맞이극장
21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4:00, 18:00 / 달맞이극장 대관 극단 오아시스 정기공연 15:00 / 별무리극장	22 기획 더 넥스트 페이지 19:30 / 달맞이극장 대관 경교사 플루트 앙상블 정기 연주회 19:00 / 별무리극장	23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대관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24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25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26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27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28 기획 아카데미 예술제 / 달맞이극장	29 대관 제2회 롯데알미늄 스타대상 12:30 / 해돋이극장 대관 신길중 뮤지컬발표회 16:00, 19:00 / 달맞이극장	30 대관 제2회 롯데알미늄 스타대상 12:30 / 해돋이극장 대관 신길중 뮤지컬발표회 16:00, 19:00 / 달맞이극장	31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2014 CHRISTMAS CONCERT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유키 구라모토

리처드 용재 오닐

아드리엘 김

디토 오케스트라

2014.12.20(토) 5PM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R-80,000 S-60,000 A-40,000 주회·주관 **안산문화예술회관** 안산문화재단 문인콜센터 080-481-4000 인터넷파크 1544-1555

ASAC

SPECIAL

08 . . . 인터뷰 _ 안산시의회 의장 성준모

12 . . .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이사

16 . . .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지혜원 PD

안산시의회 의장 성준모

문화예술은 삶의 활력 주는
‘종합 비타민제’
“시민 행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는 재단 희망...”

제7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성준모 의원. 문화예술인은 아니지만 안산의 문화예술에 대해 말할 때, 성준모 의장을 빼놓고 얘기하기란 힘들 것이다.

성 의장은 오랜 시간 교육계에 종사해 왔으며, 제6대 안산시의회에서는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안산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자(안산문화재단)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에 출범 1년이 지나 안산문화재단의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의 역할은 결코 작지만은 않다.

계절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이때, 안산의 문화예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성준모 의장을 만나, ‘우리지역 문화예술’이란 이름의 열매가 더욱 튼실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름’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 봤다.

안산시민, 특히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하늘다리’ 독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늘다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장 성준모입니다.

저희 민선6기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생활과 안산시의 캐치프레이즈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소식지인 ‘하늘다리’를 통해 독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다리’는 안산문화재단 사업은 물론 각종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소식 등을 전해주는 최고의 문화예술 기관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은 일상의 휴식이자 삶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 하늘다리는 우리 시 문화예술의 여러 소식들과 더불어 문화예술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전하고 있는 과히 ‘종합 비타민제’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하늘다리 독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늘다리를 통해 늘 여유와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안산문화재단의 하늘다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은 물론 위로와 휴식, 삶의 낭만을 느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산시의회 의장님이시자 3선의원님이신데, 안산 문화예술의 지역적 특색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산은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수원시와 화성시,

서남쪽으로는 드넓은 서해바다, 북쪽으로는 시흥시와 접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농업과 어업의 중요 생산기지로 성장해 1970~80년대 공업도시, 그리고 지금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성장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선생과 조선 예원의 총수였던 표암 강세황 선생 등이 활동하면서 우리 시 지역문화의 토대를 꽃피웠으며, 지금은 안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예술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안산문화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후, 지난 1년에 대한 아쉬운 부분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안산문화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창작희곡인 ‘염전 이야기’를 비롯해 ‘두 도시’, ‘그날들’, ‘캣츠’ 등의 대형 공연들과 안산의 ‘엘 시스템아’를 이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안녕?! 오케스트라’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름 있는 대형공연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에 좀 더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 제작 공연을 위한 배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안산문화재단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문화예술에 소외된 단 한 사람의 시




민도 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또는 문화의 전쟁시대라고도 합니다. 한 국가가 문화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인 지역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이 시민 행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그 기초가 되는 디딤돌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제7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임을 맡으셨는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에 대한 생각과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원 21명 전원이 양보와 협력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의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가 안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며,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이사

최근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한국도자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우리 도자의 가능성을 피력해 주신다면?

한국도자재단에서는 도자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도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 국내외 도자 마케팅, 도자테마파크 운영,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도자 소재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는 물론 공원시설물 등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시켜주는 사업으로서, 도자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충남 서산, 경북 청송, 인천 서구 등 전국 각지에서 22건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는 지난 봄 서울 남대문 시장 일대에 도자 아트워크를 설치한 데 이어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등 지자체의 요청으로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 도자비엔날레 준비로 한창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얼마 전 IAC(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자크 코프만 회장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의견들이 오고갔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현재 '2015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4.24 ~ 5.31)'의 국제위원회로 활동 중인 IAC 자크 코프만 회장은 지난 방문을 통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전시와 프로그램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 비엔날레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호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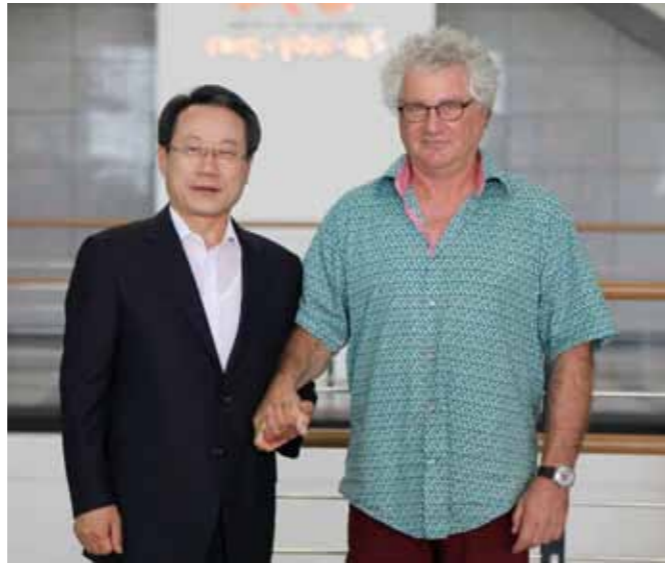
계 최대 규모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새로운 시도들과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 도예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IAC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2015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재조명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자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도자에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지요? 예를 들어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요.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천 세라피아와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여주 도자세상은 일반인들이 도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자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은 현대조형도자를, 광주는 전통 도자를, 여주는 생활 도자를 콘셉트로 도자 전시를 비롯한 물레 성형, 코일링, 도자 모자이크 타일, 핸드페인팅 및 특별 프로그램 '키즈2' 등의 다양한 도자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자쇼핑몰, 카페와 포토존 등 넓은 부지 안에 휴게 공간도 갖추고 있어 일반인들이 나들이 겸 찾아와 도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해지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과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도자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화두로 두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이 둘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도자는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전문적인 분야임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대중적이고 익숙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자재단은 우리 도자의 계승과 발전 등 도예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부문에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자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대중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는 도자 전시 지원 사업과 전통 가마 소성 지원, 레지던시 및 공방 운영, 청년 도예가 창업 지원 프로젝트, 도예가 등록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도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도자테마파크를 운영하며 전시 및 교육체험과 쇼핑물 등 대중에게 친근한 도자 콘텐츠의 제공을 시작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생활 속에 도자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 오게 마련인데요. 우리 전문 도예인들 스스로가 미래 도자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요?

많은 도예인들이 국내 도자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도자문화산업 전반이 사양길에 올랐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자명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도예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만의 고유한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 도자만의 가치와 매력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2015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4.24~5.31)'의 주제가 '색 : Ceramic Spectrum - 본색 · 이색 · 채색'으로서


한국과 아시아의 전통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도자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재조명하고 한국 고유의 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을 통한 도자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재단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단은 2015년에 8번째로 개최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4.24~5.31)'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자비엔날레로 매회 전 세계 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천 명의 도예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열릴 비엔날레를 기점으로 한국의 도자 문화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도자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물론 대중과 함께 우리 도자 문화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자 전시 및 테마파크 운영, 도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저변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바람을 비롯한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올 한 해 안산시민들의 상심과 슬픔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산문화재단이 아름다운 문화예술로 안산시민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우리 재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도 함께 나누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 탐험가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지혜원 프로듀서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된다. 그런데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도 예전엔 모두 어린 아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The next page)>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공감의 뮤지컬이다. 이 뮤지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구상한 지혜원 프로듀서는 마음이라는 이름의 서랍장, 그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이야기를 잊지 않고 꺼내서 잘 숙성시켰다.

시간은 포도주의 향을 깊게 한다.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는 이를테면 8년쯤 숙성된 포도주와 같은 작품이다. 200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브로드웨이 프로듀싱 업체에서 일했으며 그곳 경영자의 제안으로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공연예술경영 석사 과정을 수료하기도 한 지혜원 피디. 그는 당시 뉴욕에서 막을 올린 국내 작품의 마케팅을 도우면서 우리나라 작품들이 관객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봤다. 그의 외국인 친구들은 “이 작품, 뭔가 흥미롭긴 해.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겠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 피디는 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싶었다.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의 뮤지컬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동화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어공주와 심청, 콩쥐와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는 아주 닳아 있잖아요? 심청과 인어공주가 친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실마리가 돼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동서양의 동화 주인공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게 8년쯤 나만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초안을 구상한 지혜원 피디는 귀국 후 뮤지컬 시장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슴 속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 2011년 서울 뮤지컬아티스트 페스티벌에서 뜻이 통하는 박정아 작곡가를 만난 그는 한지안 작가를 소개받았고 세 사람은 처음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 아이는 물론 모든 어른들의 ‘내면아이’가 맘껏 뛰어놀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혼의 길을 열어주는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는 그렇게 무대 위에 오를 준비를 시작했다.

어른이 될 아이에게, 아이였던 어른에게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는 열 살 소녀 별이가 꿈의 나라에서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 공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결정의 순간에 갈팡질팡하는 동화 속 주인공들을 도와주던 ‘결정거울’의 도난사건, 그 거울의 도둑이었던 별이의 엄마, 별이 엄마의 비밀 등이 호기심과 공감, 몽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모녀의 이야기인데 결국 인간이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마음의 여행기이죠. 아이가 엄마의 과거를 여행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투영되어 있어요. 엄마를 여자로 이해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커가면서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다는 생각이 가슴에 울림을 줬죠. 엄마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엄마 됐을 나이에 제가 서고 보니 ‘엄마가 고작 이 나이의 여자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한테 섭섭했던 것들이 이해되었어요. 어른은 어른이 되어야 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지혜원 피디는 아이였던 어른들과 어른이 될 아이들이 꼭 함께 이 뮤지컬을 보길 거듭 강조한다.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터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막이 오르는 <더 넥스트 페이지>

막강한 자본력과 스타 마케팅에 기댄 상업적인 뮤지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뮤지컬의 현실에서도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 피디는 독립적이고 예술적인 뮤지컬의 기반이 허약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오는 12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것은 뜻 깊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공공 공연장으로서 우리 뮤지컬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우리만의 감성과 언어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거나 차별화된 시도로 논쟁의 싹을 틔운 창작뮤지컬 시리즈를 기획, 새로운 열정을 드러낸 우리 뮤지컬을 공연해오고 있다.

<더 넥스트 페이지>는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기대가 높다.

“<더 넥스트 페이지>는 작품 외적으로도, 곧 국내 뮤지컬의 제작 구조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기획된 작품입니다. 바로 안산문화재단과의 협업인데요. 말하자면, 상업 프로듀서인 저와 비영리 섹터의 역할을 하는 재단과의 공조로 함께 작품을 기획·개발·제작하는 방식을 통해 상업 프로듀서에게는 초기 개발 및 제작비 조달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이 작품이 상업화되어 생명력을 유지할 경우, 재단에는 별도의 로열티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시도하는 프로덕션입니다. 비영리 공연단체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업-비영리의 공조 체제인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뮤지컬 <렌트>, <코러스라인>, <에비뉴큐>, <스프링 어웨이킹>, <넥스트 투 노멀>, <원스> 등의 작품이 모두 비영리 공연단체에서 시작하여 상업화된 작품들이죠. 평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균형 잡히고 순수한 행보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뜻을 맞춰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혜원 피디는 <더 넥스트 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상업 프로듀서와 비영리 재단과의 협업 체제가 향후 국내 창작 뮤지컬의 제작에 새로운 제작 구조를 제시할 수 있기를 꿈꾼다.

웃으면서 달리는 마라토너

지혜원 피디는 다채로운 삶의 프리즘을 간직한 사람이다. 얼핏 보면 다양한 색을 만드는 프리즘의 한 줄기 빛이 ‘뮤지컬’처럼 보인다. 그는 뮤지컬 피디이면서, 뮤지컬 해외 마케터이고, 뮤지컬 평론가이자 대학강단에 서서 공연예술경영 관련 강의를 한다. 최근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살려 책도 펴냈다.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정작 그는 ‘60점 정도만 맞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제 인생에서 비중을 두는 부분을 따져본다면 일은 한 20%정도죠.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이런 것들이 일을 앞설 순 없어요. 결국 사랑이 100%랍니다. 20% 일도 사랑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요. 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면서도 TV드라마 프로그램을 같이 봐요. 드라마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치는지 궁금해요. 머릿속에 저장해둔 차기 뮤지컬의 소재도 제가 관심 두는 부류의 사람들 얘기이고, 뮤지컬을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사람과 그들이 자아내는 사랑이라는 에너지 때문이죠.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뮤지컬이란 의미가 없어요. 창작 작품이 가야 할 길은 결국 우리 가슴을 건드리는 것, 바로 사랑이죠!”

지혜원 피디의 다채로운 삶의 프리즘을 만드는 빛은 결국 ‘사랑’일 터이다. 사람이라는 존재와 마음이라는 실체에 대한 관심으로 그는 참 바쁘면서도 여유로워 보였다. 마치 웃으면서 달리는 마라토너 같은 마음의 탐험가. 벌써부터 그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ASAC

STAGE

- 22 . . . 연극 <프랑켄슈타인>
- 25 . . . 아침음악살롱5
- 27 . . . 제2회 ASAC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제작공연
- 29 . . . ASAC 창작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 32 . . . 2014 크리스마스콘서트
- 34 . . . 뮤지컬 <레베카>



2011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화제작!

19세기 메리 셸리의 고딕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한 연극<프랑켄슈타인>은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영화 감독 '대니 보일', 드라마 <셜록>의 인기 스타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만남으로 시작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공연이 시작된 이후 영국의 언론은 연일 호평을 쏟아냈으며 관객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전 공연 매진 사례, 연장 결정 등 수많은 화제와 이슈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두 주연 배우는 올리비에 어워드 남우주연상, 이브닝 스탠더드 어워드 남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 ◎ 2011 비평가 협회상 남우주연상 (베네딕트 컴버배치) 수상
- ◎ 2011 비평가 협회상 최고 무대디자인 부문 수상
- ◎ 2011 이브닝 스탠더드 어워드 남우주연상 (베네딕트 컴버배치 & 조니 리 밀러) 공동수상
 - ※ 1970년 존 길구드와 랄프 리처드슨 공동 수상 이후 40년 만의 공동수상
- ◎ 2012 올리비에 어워드 남우주연상 (베네딕트 컴버배치 & 조니 리 밀러) 공동수상
 - ※ 올리비에 어워드 역사상 최초의 공동수상
- ◎ 2012 올리비에 어워드 최고 조명 디자인 부문 수상

소름 끼치게 팽팽한 연극. 숨쉴 틈 하나 주지 않는다. 훌륭한 연극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흥미롭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 The Times(타임스)

보일이 택한 '배역 역전'은 놀라움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을 불러왔다. 계속해서 자극을 가하는, 상상력으로 충만한 프로덕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다.

– Independent(인디펜던트)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 VS 인간을 갈망하는 괴물

<프랑켄슈타인>은 시체로 생명을 '창조'함으로써 스스로를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 한 젊은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순수하고 선했으나 인간들의 질시와 냉대로 점점 잔혹해지는 그의 창조물 '괴물(Creature)' 사이를 숨가쁘게 오간다. 둘은 정 반대의 입장에서 날 선 대립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어딘지 모르게 서로 닮아가는 듯한 모호한 경계에 놓이게 된다. 영국 초연 당시 두 주연 배우는 '프랑켄슈타인'과 '괴물(Creature)'을 하루씩 번갈아 연기함으로써 연극적인 매력을 선보인 동시에 선과 악의 본질, 인간의 본성 등에 대한 오늘날의 철학적 질문을 '인간=괴물(Creature)'이라는 시각적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창조신화에 대한 도발!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모두가 믿고 있던 시대에 인간의 손으로 생명을 만들어 냈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도발적이었다. 원작이 전능함을 꿈꾸었던 인간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창조신화를 다루었다면, 연극 <프랑켄슈타인>은 '빅터'와 함께 '괴물(Creature)' 역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태까지 한 번도 조명되지 않았던 '괴물(Creature)'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과 세상을 표현하며 새로운 시대의 창조신화를 탄생시켰다.

<프랑켄슈타인>은 원작이 지닌 경이로운 상상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진중한 주제 의식 모두를 놓치지 않으면서 세련된 연출과 놀라운 무대 구성으로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Synopsis

인간과 인간에 의해 창조된 괴물(Creature)
그 둘의 위험한 거래가 시작된다!
어느 날 밤, 젊은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인간
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다.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만, 동시
에 너무나 추악한 외모를 지닌 '괴물(Creature)'.
그는 창조자 '빅터'에게조차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배척당한다. 자신의 외모를 저주하며 인간
세상에서 스스로를 배척하던 괴물은 어느 날, 숲 속을
헤매다 눈먼 노인을 만나 언어와 문학, 인간다운 감정
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노인의 가족들은 그의 추악한 외모에 놀라
그를 저주하며 내쫓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절망한 '괴물(Creature)'은 복수를 결심하고, 그의
기원이자 창조자인 '빅터'를 찾아가 '자신을 위한 완
벽한 짝'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는데...

“내 심장은 검다. 악취가 풍긴다. 나의 마음, 한 때는
아름다움을 꿈꾸었던 마음은 복수의 용광로가 되었
다! 삼 년 전 내가 태어났던 순간, 나는 태양의 열기
에 즐거워 웃었고 새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내
게 풍요의 정원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눈보라가 가득
한 황무지가 되었지.”

- <프랑켄슈타인> 괴물(Creature)의 독백

“프랑켄슈타인과 '괴물(Creature)'은 서로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공연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안에 깃들
고 있다.”

- 대니 보일, 2011년 초연 연출

연극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날짜.
2014. 11.15 (토) 3시, 7시 ~ 11.16 (일) 3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R석_5만원, S석_3만5천원, A석_2만원
(고등학생이상 관람가)

연출. 조광화 / 협력연출. 구소영
무대디자인. 정승호 / 음악. 원미솔

출연.
박해수, 이윤, 정영주, 박지아, 전경수, 황선화,
안창환, 조민정, 장한얼, 정승준, 이민재, 박도연

주최. (재)안산문화재단
제작. (주)연극열전

예매문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아침음악살롱5

‘최선배 재즈 앙상블’

CHOI SUN BAE
JAZZ ENSEMBLE아침음악살롱5
〈최선배 재즈 앙상블〉

날짜.
2014. 11. 27(목) 11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8천원

출연.
최선배, 김수열 등





대한민국 재즈 1세대 거장들의 귀환!


2014 ASAC 아침음악살롱 마지막 무대는 대한민국의 산증인이자 1세대 대표 주자로 불리는 트럼페터 최선배가 안산을 찾는다. 정통과 프리재즈를 넘나드는 폭 넓은 실험성과 재즈 트럼펫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트럼페터 최선배는 독학으로 트럼펫을 시작해 해병군악대를 제대한 이후 1960년대 초 주한미군 무대에 섰다. 이후 암울했던 한국 상황과 달리 재즈전성기를 맞이한 1980년대에 프리재즈로 일본에 진출하게 되었다. 일본 전국순회 공연과 독일 재즈페스티벌 등 여러 공연에 초청되며 해외에서 실력을 더 인정받았으며 트럼펫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해왔다.

재즈 그 이상의 송고한 울림, 칠순을 넘긴 한국 재즈의 전설 '최선배'

재즈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즈가 그저 좋아서 끊임없이 연주하고 독학으로 이어온 타고르는 열정! 한국 대중음악의 장인! 50년 넘게 우리의 재즈를 세상에 알렸던 장인인 한국의 재즈 1세대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

모 치킨 할아버지의 해맑은 웃음이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푸근한 인상을 가진 최선배는 우리나라 재즈 1세대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브라보! 재즈 라이프>로 더욱 화제가 되었다.

국내 최초의 프리 재즈 트럼페터 최선배와 함께하는 감미로운 재즈의 향연

재즈 팬들에게 익숙한 'Whisper not', 'Children of the night', 'Sack of woe', 'Delirio', 'Sorcerer' 등을 연륜과 경험이 묻어나는 연주로 들려준다. 또한 연주자들의 전용 공간처럼 느껴지던 무대에서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보고 듣고 악기의 떨림을 온 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마룻바닥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사라지고 연주자와 가까운 거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게 될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라는 장르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관객과 연주자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싸인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 

※ 공연 종료 후,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ASAC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제작공연



연극 <엄마의 이력서>

날짜:
2014. 12. 5 (금) ~ 14 (일)

시간:
평일 7시30분,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 3시 (100분)

관람료:
2만5천원 (관람연령 10세 이상 관람가)

작: 최명진
연출: 박혜선
제작: (재)안산문화재단
출연:
장항석, 김종숙, 김미영, 김동민, 박주용,
김정희, 변효진

티켓오픈:
11. 6 (목) 오후 2시 예정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문의 031-481-4022




제2회 ASAC 창작희곡공모 대상 당선작 <엄마의 이력서>
최명진 작. '동아연극상 연출상(45회)' '히서 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18회)'에
빛나는 박혜선 연출, 7:1의 오디션에서 선발된 7인의 명품배우들이 만드는 감동무대

작가의 글

'다시 태어나면 저 여자처럼 살고 싶다' 얼마 전 TV에 나온 여행전문가를 보고 우리 엄마가 한 말이다.
올해로 예순여섯이 된 우리 엄마가 TV를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다'고... 예전에는 몰랐지만, 어느덧 내가 마흔이 되고 나니 이 말이 참 아프게 느껴
진다. 현생이 아닌 다음 생의 꿈을 꾸며 사는 우리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도전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엄마의 그 말에 담긴 참 뜻을 알기에 언제나 의미없는
응원으로 끝나고 만다. 결혼 전 은행원으로 제법 똑똑하던 소리를 들곤 했다고 자랑을 할 때면 늘 그 때로
돌아가는 듯 부끄러운 미소를 짓는 우리 엄마.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든든하지 못한 두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느라 훌
쩍 지나가버린 세월이 갱년기의 아픔도, 외로움도, 이름마저 물어버린 엄마의 인생에 대한 낯두리를 시작
하고자 한다.

엄마, 딸, 마누라로 흘러간 46년, 남은 인생 폼나게 살고 싶은 그녀의 성장통!

46세 평범한 주부, 이영숙
사업실패로 친정살이 중인 그녀는 늘 부재중인 기운 없는 남편과 늘그막에 만난 남자 때문
에 툭하면 집을 비우는 그녀의 엄마, 그리고 미국 동생네 집으로 유학간 아들 사이에서 흘
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 동네 미용실에서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아줌마들과 수다 떠
는 게 유일한 낙인 그녀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다른 가정의 이혼과 바람소식은 결코 자
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히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목
격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답답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하게 된다. 방향하던 그녀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혼플래너! 이혼플래너는 그녀에게 3개월 안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약속하고... 서서히 그녀는 30여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영숙'이란 이름이 가진
가치를 알게 되면서 홀로 설 준비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약속한 3개월이 다 되고, 더 이
상 홀로 서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된 이영숙, 과연 그녀는 이혼을 선택할까~ 

<히스토리 보이즈> <모범생들> 김태형 연출
<마마돈크라이> <트레이스 유> 박정아 작곡
어른과 아이의 감성을 잇는 청춘동화,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ASAC 창작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Musical The Next Page)

날짜. 2014. 12. 17(수) - 12. 23 (화)	할인. 재단회원20%, ASAC연극가족30%, 청소년50%
시간. 평일 7:30PM 토요일 3, 7PM 일요일 2, 6PM (120분 소요)	작가. 한지안 / 작곡. 박정아 / 연출. 김태형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티켓오픈. 11. 4 (화) 오후2시
관람료. 5만원, 3만원, 2만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문의 031-481-4022





박정아 작곡가와의 인터뷰 中

⋮

두 가지 색 사랑을 담은 뮤지컬 - 더 넥스트 페이지

요즘 작곡가 박정아가 몰두하고 있는 뮤지컬 작품은 <더 넥스트 페이지(The next page)>이다. CJ문화재단의 창작물 지원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에 응모, 경쟁 끝에 뽑힌 작품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 작품은 지난 해 서울에서 리딩(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섰다. 리딩공연이란 무대에 올리기 전 제작자 등에게 보여 주고 제작 참여를 유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리딩공연 당시 이 뮤지컬의 제목은 <반짝 내 맘!>이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성장’이죠.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0살 소녀 별이가 꿈속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이 색다른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성장이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관객은 내 안의 아이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성장의 순간을 ‘반짝 내 맘’이라고 했었는데 성장이란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란 뜻에서 ‘더 넥스트 페이지’라고 바꿨어요. 극이 옴니버스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죠.”

작곡 작업에 들어가기 전 대본을 읽으면서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는 체험을 했다는 박정아 씨에게 <더 넥스트 페이지>는 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한다. 그는 주인공 별이와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엄마이며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대본을 쓴 작가와 연출자는 그의 집에서 작업을 하며 현실의 별이인 그의 딸을 보며 함께 놀라워하고 진하게 한마음이 되기도 했다.

“작업을 하면서 저와 작가, 제작자, 연출자, 배우들이 일시에 눈물바다가 되었던 적이 많아요. 서로 같은 주파수대의 감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면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어요. 열 살이란 나이는 생각할수록 참 오묘한 나이라고 생각해요. 제 딸을 봐도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확장하는 것이 느껴져요. 작곡가인 제게 ‘엄마’라는 타이틀은 선물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슬픔이 100번 오가던 성격이 500번쯤 오가게 되었답니다! 그 감성이 제가 곡을 쓰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단 자리 수의 나이에서 십대로 진입하는 아이의 타인을 향한 성숙한 사랑,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있는 사랑-. 작곡을 해가면서 이처럼 두 가지 색,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고 꽃 피는 것을 느꼈다는 박정아 씨는 관객들의 마음밭에도 그 꽃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책장을 넘겨 그 다음 페이지를 원한다면 누구나 청춘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해 온 국내 뮤지컬 시장은 소재와 장르가 점차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주요 관객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절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으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은 그저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연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연이 필요하다는 제작진의 공감아래 개발되는 뮤지컬<더 넥스트 페이지>는 가족 그리고 청춘을 위한 동화이다.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 상상의 틀을 깨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우리 아이가 친구가 된다면..?

<더 넥스트 페이지 (The Next Page)>는 꿈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딸 ‘별이’가 꿈속나라의 용맹공주였던 ‘엄마’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 아이가 서로 친구가 된다면 지금처럼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관계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인어공주, 심청이,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 그레텔 등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동서양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얼핏 아동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슴 속 한 구석에 소녀와 소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다. 동화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쩌면 누구나 궁금해 하며 상상하는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의 삶의 다음 페이지와 연결시켜 흥미로운 이야기 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펼쳐낸다.

안산문화재단 자체제작, 창작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The Next Page)>(리딩 공연 당시 제목은 ‘반짝, 내 맘’)의 첫 개발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어공주와 심청이’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지혜원 프로듀서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해가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다. 박정아 작곡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후 한지안 작가, 김태형 연출의 합류로 본격적인 작품의 뼈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젊은 스태프들의 의기 투합이었던 것만큼 프로듀서와 창작진은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으로 작품 개발에 참여해왔다. 2013년 10월 CJ크리에이티브 마인즈의 중대형 극장용 콘텐츠 개발 첫 번째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2차례에 걸쳐 리딩 공연을 마쳤으며,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개발의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프로듀서와 창작진과 그리고 비영리 공공공연장과의 긴밀한 협업과 단계별 개발 과정을 거쳐 신선한 구성과 탄탄한 완성도를 지닌 작품으로 공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젠가 한때는 아이였고, 언젠가는 어른이 될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성인 뮤지컬과 아동극으로 양분화된 국내 뮤지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준 높은 무대가 기대된다. 

Yubki Kuramoto Christmas Concert

2014 크리스마스콘서트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

2014 크리스마스콘서트
-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

날짜.
2014. 12. 20 (토) 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료.
R석_8만원, S석_6만원, A석_4만원,
청소년석_1만원
(2층, 선착순 200석 한정판매)

출연.
유키 구라모토, 리처드 용재 오닐,
아드리엘 김, 디토 오케스트라

가장 특별한 날, 연인과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국에서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유키 구라모토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12월 크리스마스만을 위한 스페셜 공연으로 안산을 찾는다.

유키 구라모토의 역대 안산 공연은 매번 매진 사례를 보였을 만큼 그는 안산시민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아 온 아티스트 중 한명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 함께 한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안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녕?! 오케스트라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안산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아티스트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변함없는 매진 신화의 주인공!

1986년 첫 피아노 솔로앨범 중 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데뷔에 성공한 유키 구라모토는 국내에 발매된 1998년 앨범에서부터 2011년 베스트 앨범, 2013년 신보까지 100만장이 넘는 라이선스 앨범 판매 기록을 수립하며 한국 관객을 사로잡은 아티스트이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울리는 유키 구라모토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15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관객을 사로잡아 왔다. 피아노와 현을 중심으로 한 어쿠스틱한 사운드, 유키 구라모토만의 자연 친화적인



감성은 언제 어디서나 위로가 되는 음악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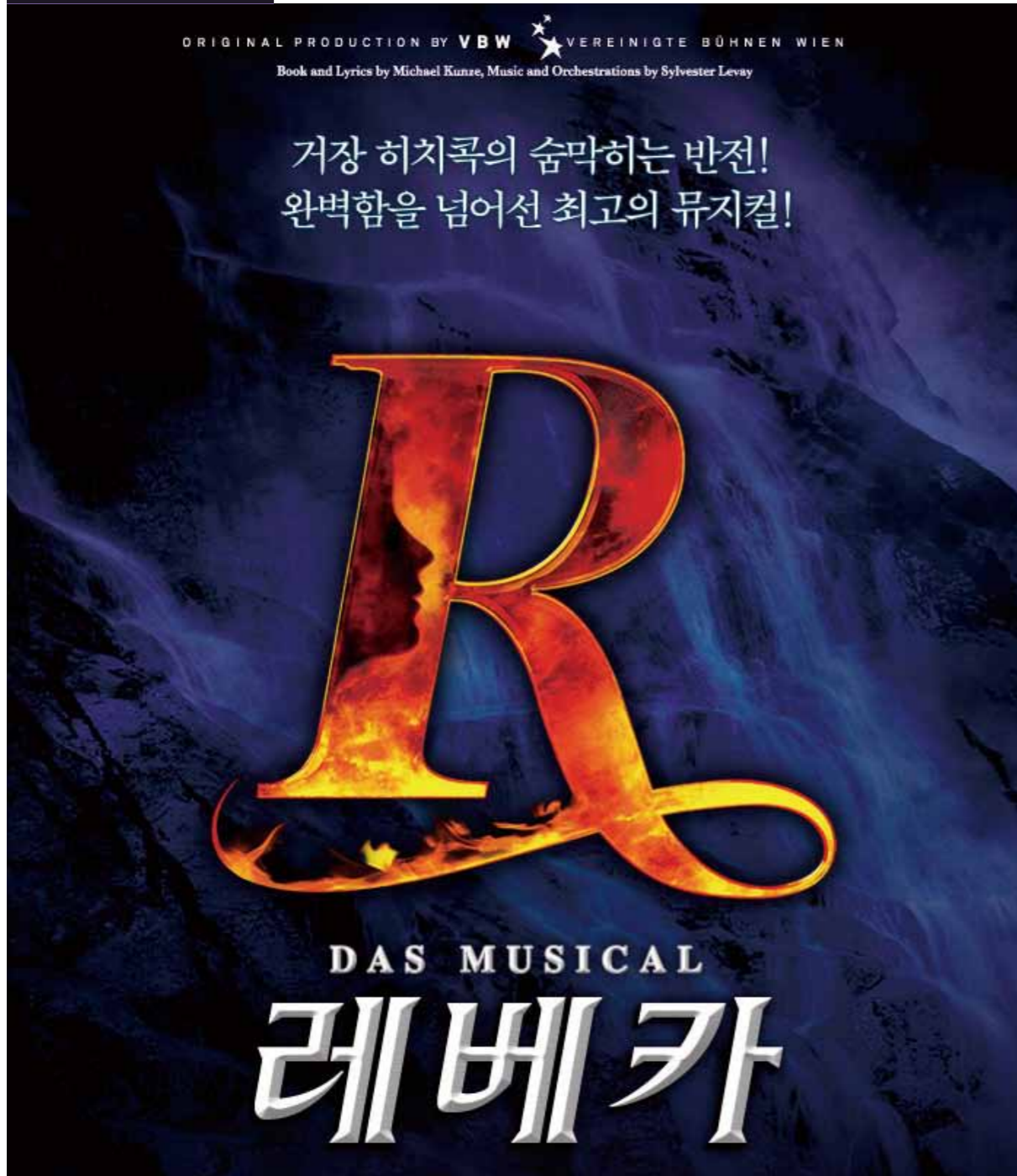
비올리스트로서 그래미상 베스트 솔리스트 부문 노미네이션 뿐만 아니라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은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인 리처드 용재 오닐은 한국에서는 디토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으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크리스마스 메들리, 유키 구라모토의 베스트 송 등으로 꾸며질 무대.

이번 공연에서 유키 구라모토는 자신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직접 편곡한 크리스마스 송 메들리로 성탄절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클래식 아티스트 중 보기 드문 막강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용재 오닐은 비올라 레퍼토리 외에 특별히 유키 구라모토와

듀오 무대도 선사할 예정이다. 유키 구라모토와 용재 오닐의 크리스마스 공연 파트너는 지휘자 아드리엘 김이 이끄는 70인조의 디토 오케스트라이다. 이들이 뭉친 '막강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2014년 크리스마스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REBECCA
Character & Cast



**알프레드 히치콕의 원작 <레베카>를 뛰어넘는
격조 높은 뮤지컬!**

안산문화재단이 대작 뮤지컬 '레베카'를 2015년 첫 공연으로 선보인다.

'레베카'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제의 손에서 탄생하여 2006년 비엔나 공연 당시 3년 동안 전석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다. 2013년 국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뮤지컬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공연의 흥미로운 점은 이 원작 소설을 소재로 만든 영화와 뮤지컬이 모두 관객의 사랑을 받은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것. 한편으로 소설, 영화, 뮤지컬이 극의 기본적인 구성은 같지만, 결말이 상이하다는 것도 독특하다. 동일한 작품이면서도 장르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연출한 맨덜리 저택 화재,
실감나는 현장감**

맨덜리 저택의 화재는 주인공인 '나'와 남편 막심이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장치. 사별한 아내 레베카를 잊지 못해 힘든 나날을 보내던 막심과 결혼한 '나'는 맨덜리 저택 곳곳에 남아 있는 전처의 흔적에 짓눌린다. '나'에게 알 수 없이 적대적이던 집사 댄버스 부인은 레베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고 저택에 불을 지른다.

거대한 맨덜리 저택이 불에 타는 장면은 컴퓨터그래픽(CG)을 이용한 영상효과로 극적인 긴장감을 높인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상들리에를 보고 가슴이 철렁한다. 대극장 무대 바닥에 40~50cm 높이의 실제 불을 사용해 현장감을 높였다.

REBECCA Character & Cast



댄버스 부인
Mrs. Danvers



신영숙

ASAC기획뮤지컬 <레베카>

날짜.
2015. 1. 3 (토)~1. 4 (일) 3시, 7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료.
R석_10만원, S석_8만원, A석_6만원, 날개석_4만원

출연.
오만석, 민영기, 엄기준, 리사, 신영숙 등

뮤지컬 레베카, 음악만으로 만들어낸 팽팽한 긴장감 압권
나와 댄버스 부인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음악이다. 두 사람이 레베카의 방에서 대립하는 장면은 휘몰아치는 음악만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를 열창한 뒤 무대는 180도 회전하며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로 전환되고, 이때 댄버스 부인의 선 굵은 음성과 나의 청아한 고음이 어우러져 '저 바다로 뛰어'를 완성한다. 톤부터 다른 두 목소리는 서로의 빈틈을 파고들어 팽팽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낸다. 노래가 끝난 뒤 배우들이 다음 연기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갈채가 쏟아지는 이유다. 어두침침한 기운이 감도는 대형 저택과 반투명 가림막(샤막) 위에 펼쳐지는 바닷가와 숲길 영상 등 무대장치는 묵직한 작품의 분위기를 북돋운다.

오만석, 민영기, 리사, 신영숙 등 초호화 캐스팅

뮤지컬 '레베카'의 주인공인 막심 역으로 관객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민고 보는 배우' 민영기와 뮤지컬과 연극에서 개성 강한 연기로 존재감을 발휘해온 오만석, 브라운관과 뮤지컬 무대를 중횡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는 엄기준이 열연한다. 무대 위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며 대한민국을 '레베카 신드롬'으로 몰들였던 댄버스 부인 역에는 무대 위를 장악하는 에너지와 폭발적인 성량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신영숙과 팔색조 매력으로 단번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 겸 배우 리사가 또 한명의 댄버스 부인으로 혼신의 열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뮤지컬 '레베카'는 2013년 한국 초연 당시 뛰어난 작품성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연출상을 비롯하여 무대상, 조명상, 음향상 등 작품성을 입증하는 핵심 부문에서 트로피를 수상해 국내 언론과 관객으로부터 '2013년 상반기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평을 받았다. 

ASAC

CULTURE TREND

38 . . . 테마가 있는 미술 _ 우피치 미술관

44 . . . 테마가 있는 공연 _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48 . . .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와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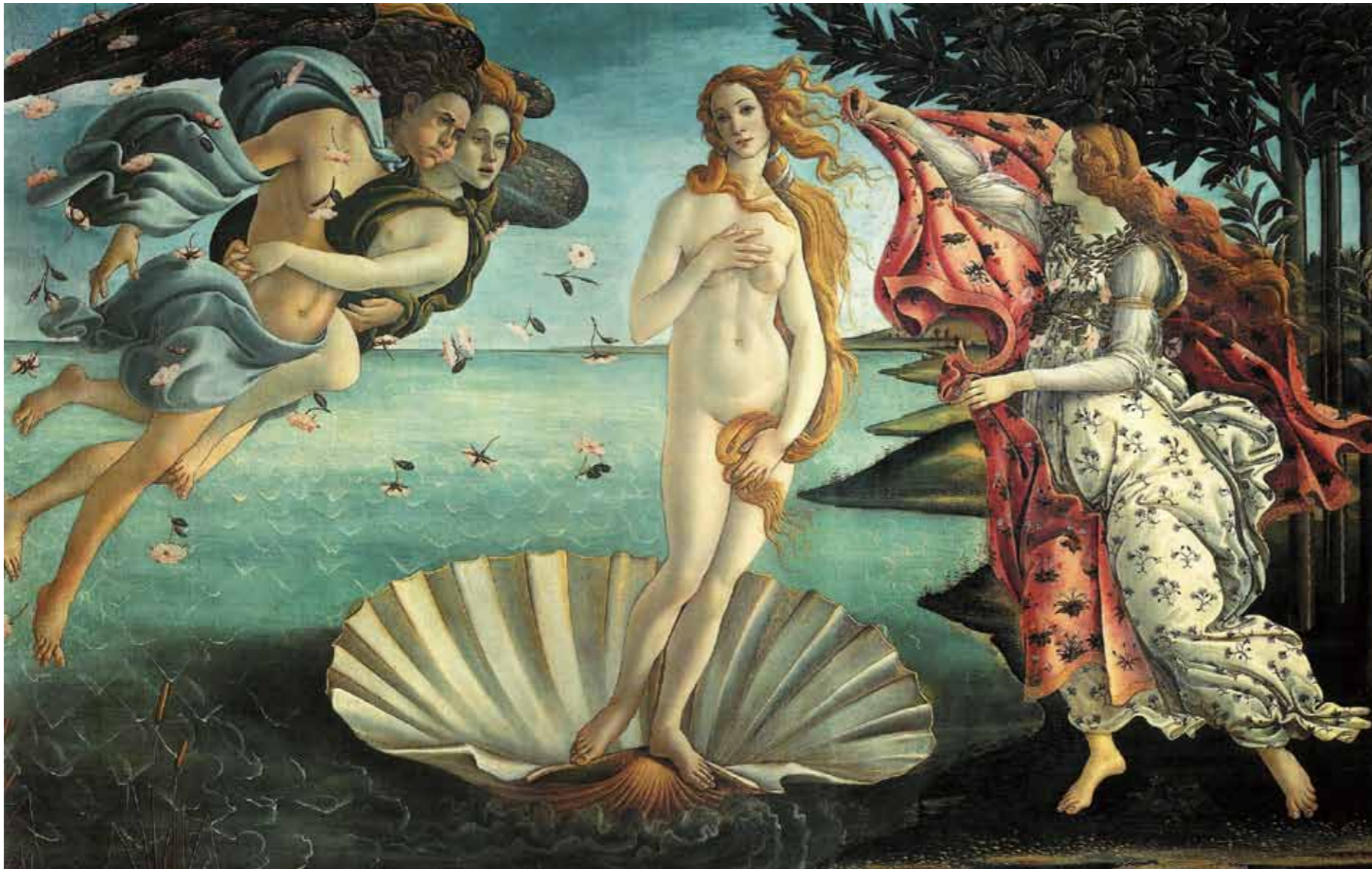
54 . . . 칼럼 _
5부, 조절음악치료 실재를 위한 단계설명

■ 테마가 있는 미술 - 세계의 미술관(5)

르네상스 미술의 보고(寶庫), 우피치 미술관

1

1.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1485년경, 우피치 미술관 소장



한해 약 16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은 이탈리아 피렌체를 대표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미술관이 근대 이후 등장한데 반해, 우피치 미술관은 훨씬 앞선 16세기 중반 르네상스 시대에 탄생했다. 당대 피렌체 권력의 중심에 있던 메디치 가문의 주도로 르네상스의 명작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었다.

요한 조파니, 우피치를 그리다

1772년 여름, 요한 조파니(Johann Zoffany)는 런던을 떠나 피렌체로 향했다. 그는 영국 왕실의 샬럿 왕비의 후원을 받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소장품들을 그림으로 그려낼 계획이었다. 조파니는 이후 7년간 피렌체에 체류하며 메디치 가문의 컬렉션을 연구하고, 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냈다. 완성 후 그는 그림의 제목을 <우피치의 트리부나>라고 붙였다. '트리부나'는 우피치 미술관의 중심에 위치한 팔각형의 방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공공 미술관이 출현하기 이전에 귀족들이 자신의 예술 컬렉션을 손님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사적 전시장을 의미했다.

매우 복잡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조파니의 그림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르네상스의 명화들이 그림 속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화면 중앙에서 귀족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는 여성누드화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이다. 좌측 화면 뒤로 모인 귀족들은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에 정신을 빼앗긴 모습이다. 이외에도 코레지오, 루벤스, 귀도 레니, 홀바인 등 르네상스로부터 바로크에 이르는 대가들의 명화가 벽면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다. 조파니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우피치의 컬렉션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근대 도시 피렌체를 호령하던 메디치가의 저력이 담겨 있었다.



트리부나에서 국립미술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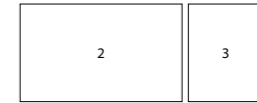
우피치 미술관은 본래 피렌체의 귀족인 메디치가의 개인 갤러리로 조성되었다. 미술관의 건물은 본래 우피치궁으로 불렸다. 16세기 중반에 투스카니 지역의 대공이었던 메디치가의 코시모 1세의 주문으로 유명 화가이자 건축가인 바자리(Giorgio Vasari)가 건축하였다. 1581년 코시모 1세의 아들인 프란체스코의 집권기에 완성되었으며, 처음에는 메디치가의 공무 집행실로 사용되었다. 우피치(uffizi)는 본래 이탈리아어로 ‘집무실(office)’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궁의 구조는 말발굽 모양으로 시뇨리아 궁과 베키오 궁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이 사이를 회랑이 연결해 주고 있다. 건물 3층에는 처음부터 미술품을 수집,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트리부나도 이러한 전시 공간 중 하나였다. 메디치가의 마지막 상속녀인 안나 마리아 루이

자가 1737년 메디치궁과 소장품을 기증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미술관으로 변모하였다. 이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국립미술관으로 승인되었다.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은 3층 규모의 45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약 2천 5백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13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회화 컬렉션이 매우 뛰어나다. 작품에 명제표를 달기 시작한 최초의 미술관이며, 작품을 연대순으로 배치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미술 양식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우피치의 전시 방식은 이후 근대적인 작품 배치의 기준이 되었다. 1층 회랑을 중심으로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1층 내부 공간에는 고문서들이, 2층에는 판화와 소묘 작품들이, 3층에는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르네상스를 꽃피운 피렌체와 메디치가

15세기 피렌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며 학문이 발달하여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근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단테와 보티첼리가 문학을 대표했으며, 성 프란체스코가 새로운 종교관을 이끌었다. 이른바 ‘꽃의 성모’라고 불리는 두오모 성당이 완성되어 도시의 중심이 되었다. 신은 떠나고 인간이 남았으며, 고대의 철학이 다시 살아나고 신화가 주목받았다.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말은 ‘재생’ 또는 ‘부활’을 뜻한다.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문학, 철학을 되살려 인간의 가치를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강력한 기독교 사상 아래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받던 중세를 ‘어둠의 시대’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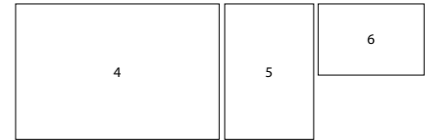


2. 요한 조파니, 우피치의 트리부나, 1772-8년, 원저공 소장
3. 카리바조, 바쿠스, 1593-4년, 우피치 미술관 소장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피렌체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왕이나 귀족들이 숨쉬 있는 조각가와 화가를 불러 초상화나 벽화 등을 부탁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다. 메디치 가문은 무역과 은행업으로 부를 쌓은 피렌체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가였다. 코시모 1세로부터 시작해서 손자인 로렌초에 이르기까지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은 보티첼리를 포함해서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의 대가들을 늘 후원했다. 이들의 경제적 후원이 결국 르네상스 미술의 토대가 된 것이다.

르네상스의 명화들이 한자리에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의 명성은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대가들의 작품에 근거한다. 미술관의 3층에는 초기부터 전성기까지 르네상스 미술의 주요작품이 모여 있다. 피렌체 화파의 선구자인 치마부에와 지오토의 제단화뿐 아니라 전성기 르네상스의 3대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회화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초기 르네상스 작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보티첼리의 작품들이다. 보티첼리 역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아 <프리마베라>와 <비너스의 탄생> 등을 그렸다.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정원에 찾아온 봄의 풍경을 그린 <프리마베라>는 1475년 기마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그의 연인



4.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태고지, 우피치 미술관 소장
5. 라파엘로, 레오 10세의 초상, 1518년, 우피치 미술관 소장
6. 보티첼리, 프리마베라, 1478년경, 우피치 미술관 소장

시모네스 베스푸치의 사랑을 축복한 시인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 '라 지오스트라'를 형상화한 것이다. 즉 주문자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커플을 축복하기 위한 그림인 셈이다. <비너스의 탄생>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키테라섬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조가비를 타고 이제 막 육지에 도착한 비너스의 오른쪽에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비너스를 맞으며 옷을 펼쳐들고 있다. 그녀가 입은 옷과 비너스에게 입혀줄 옷에는 봄의 꽃 데이지가 가득 피어있다. 당시 피렌체에는 섬유 산업이 발달하여 다양한 문양의 천들이 생산되어 의복에 활용되었다. 보티첼리 그림은 당대 피렌체의 섬유산업의 발달을 보여준다. 다빈치의 작품으로는 스승인 베로키오와 함께 그린 <예수의 세례식>과 다빈치의 초기 작품인 <수태고지>를 만날 수 있다. <수태고지>는 피렌체의 산 바

르톨로메오 아 올리베토 교회의 제단화로 제작되었다. 주제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가 성령의 아이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장면이다. 왼쪽의 가브리엘은 손가락을 들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마리아는 왼손을 살짝 들어 올려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의 초상>은 메디치 가문 출신의 레오 10세 교황과 두 인물을 그린 그룹 초상화이다. 레오 10세의 본명은 조반니 데 메디치로, 1513년에 교황에 등극했다. 왼쪽의 인물은 훗날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되는 줄리오 데 메디치이며, 오른쪽은 추기경인 루이지 데 로시이다. 정치적 권력에 이어 종교적 권력까지 장악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루벤스와 카라바조를 중심으로 한 바로크

미술 컬렉션도 훌륭하다. 1593년 그려진 카라바조의 <바쿠스>는 작가의 오랜 후원자인 프란체스코 델 몬테 추기경이 그의 친구 페르디난도 데 메디치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이상화된 신의 모습을 거부하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주신(酒神)의 모습을 완성했다. 화관을 쓴 바쿠스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며, 홍조 띤 볼과 새하얀 피부로 인해 중성적인 느낌을 준다. 테이블 위에 놓인 포도주병과 포도 등의 과실이 담긴 바구니는 바쿠스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전통적인 모티프이다. 우피치 미술관에서는 거니는 시간보다 작품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 그만큼 한 작품 한 작품이 모두 공들여 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에게서 벗어나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니

인류 문명의 새로운 빛, 르네상스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피렌체로 향하자. 당신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은 이탈리아어로 '갤러리아 델리 우피치'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 우피치 미술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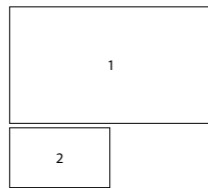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우리 연극을 이끄는 극단들 ⑤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섬세한 언어와 디테일로 빚어내는 무대



1, 2. <가메오> ©두산아트센터



3. <과학하는 마음>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4. <정물화> 공연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5. <삼등병> 공연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란 이름은 지구상의 수많은 언어 중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대략 12번째로 많다는 통계로부터 비롯되었다. 극작과 연출을 병행하는 성기웅을 중심으로 한 젊은 연극인들이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란 이름으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06년이지만, 초기에는 연출과 배우 모두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극단 작업보다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힘을 쏟았다. 그렇게 서너 해를 보내고 난 뒤 어느 정도 극단이 추구하는 연극적 시도들이 몇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자 이들은 극단의 작업을 꾸준히 함께 해나갈 멤버들을 중심으로 극단을 재정비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극단의 이름을 건 다양한 시도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

자신들의 극단 이름에 ‘언어’란 말을 넣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의 작업들은 무대 위의 ‘말’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대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극단으로 유명하다. 이는 창단 당시 우리 연극계에 넘쳐나던 이미지 연극, 신체 연극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언어, 특히 히라타 오리자가 주창한 ‘현대 구어(口語)’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극단 대표 성기웅과 배우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무대 언어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작품 속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화를 진행시키거나(<과학하는 마음> 시리즈), 1930년대 서울 말씨를 복원해서 들려주거나(<소설가 구보씨의 1일>), 1930년대 조선어와 일본어, 에스페란토어를 동시에 사용하거나(<가메오>), 극도로 제한된 군대 언어를 통해 말이 지닌 권력과 폭력성을 은유하거나(<삼등병>), 소설의 문학적 언어를 배우의 말로 변형시키는 등(<단편소설 극장전> <단편소설입체낭독극장>)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일상 언어’에 대한 연극을 만들겠다는 나름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장르와 소재의 경계를 넘다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의 작업 중 일반적인 의미의 창작극은 초기작인 <삼등병> 한 작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의 작품들은 과학 연극 시리즈, 일본 연극인과의 합동 공연, 문학 텍스트의 무대화 등 대부분 그간 우리 연극계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다른 장르, 다른 분야, 다른 문화권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들이다. 연극에서 출발하되 뭔가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6.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두산아트센터

6

오의 작업들은 기존의 연극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양식과 표현들을 찾아내고 있다.

창단과 함께 시작해 몇 년간 꾸준히 무대에 올린 <과학하는 마음> 시리즈는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의 이름을 널리 알린 극단의 대표작이다. 연극이란 범주에서 가장 먼 과학, 그리고 그 세계에 속해있는 과학자들의 생생한 일상을 극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연극이 다루는 소재와 범위를 한층 확장시켰다는 데서 이 시리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성기웅이 이 시리즈를 공연하게 된 것은 ‘과학’이란 소재 자체보다 히라타 오리자 특유의 조용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와 동시다발적 대화 등 독특한 형식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습과 공연을 거치면서 연출과 배우 모두 작품이 다루고 있는 ‘과학’이란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또한 과학이란 분야에 낯선 연극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지속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가장 첨단 분야라 할 수 있는 생명과학과 고전적인 아날로그 영역을 대표하는 연극이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예였다.

한편, 근래 들어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문학 텍스트의 무대화이다.

<단편소설 낭독공연> <단편소설 극장전> <단편소설입체낭독극장> 등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소설을 무대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이들의 꾸준한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들은 단순히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거나 낭독하는 것을 넘어서, 문학적인 언어와 무대 언어 사이에서 새로운 연극적 표현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보 박태원의 소설을 무대 위로 가져온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었다.

디테일이 강한 무대

또한 성기웅과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의 작업은 섬세하고 디테일이 강한 무대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섬세함이 잘 드러난 최근의 공연으로는 재일교포인 유미리의 초기작을 무대에 올린 <정물화>를 들 수 있다. 사실 <정물화>에서는 뚜렷한 갈등이나 사건을 발견하기 어렵다. 보수적인 학풍을 지닌 가톨릭계 여고의 한 교실, 다섯 명의 문예부 학생들이 모여 방과 전과 후, 부서 활동을 하며 수다를 떨고 헤어지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다섯 소녀 중 한 사람인 나나코가 마지막에 자살했다는 사실이 암시되긴 하지만, 그것이 역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사건이거나 갈등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명의 여고생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감정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증폭된 정서와 흔들림 같은 것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성기웅은 특유의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다섯 소녀의 미묘한 감성을 무대 위에 그림처럼 그려냈다. 방과 전과 방과 후 교실


을 비추는 조명 톤의 변화나 미묘하게 엇갈리는 배우들의 시선, 차분한 톤으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 등 테크닉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작품이 담고 있는 정서의 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서 연출의 섬세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일본 연극과의 활발한 교류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 연극과의 활발한 교류이다. 그동안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는 일본 현대 연극의 대표주자인 히라타 오리자(<과학하는 마음> 시리즈)와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정물화>)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고 일본의 젊은 연출가 타다 준노스케와 함께 일련의 작업을 이어가는 등 동시대 일본 연극인들과의 협업에 앞장서왔다.

특히 타다 준노스케가 이끄는 극단 도쿄데스락과는 <로미오와 줄리엣> <LOVE> <재/생(Re/Play)> 등 합작 공연을 꾸준히 올리면서 남다른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2013년에는 체홉의 <갈매기>를 1930년대 조선의 이야기로 각색한 <가모메>에 성기웅과 타다 준노스케가 각각 작가와 연출로 함께 참여하고, 양국의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 타다 준노스케가 그해 외국인 최초로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근대 문화의 형성기’라는 관점에서 1930년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성기웅은 <가모메> 이전에 이미 <조선 형사 홍윤식> <소설가 구보 씨와 경성사람들> <깃븐 우리 절믄 날>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등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창작극 시리즈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가모메>에서도 성기웅은 원작의 이야기에 1930년대 실제로 일본과 우리 연극계의 화두였던 신파극과 신극운동 등 문화계의 이슈를 흥미롭게 녹여내었다.

이렇듯 언어와 시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낯설고 새로운 연극을 향한 시도와 실험 속에서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는 매번 자기들만의 색깔을 확실히 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곧 연극의 장르와 국적, 소재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연극의 범위를 다각도로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제12언어 연극스튜디오

극단 연혁

2006년 창단 : 창단공연 <과학하는 마음-발칸동물원>
주요 작품 <삼등병> <과학하는 마음>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단편소설입체낭독극장> <재/생> <정물화> <가모메> 외

극단 수상경력

<소설가 구보씨의 1일>
2010 동아연극상 무대미술 기술상 <가모메>
2013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시각디자인상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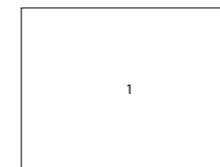
오페라와 영화

〈피츠카랄도〉와 〈M. 버터플라이〉의 경우

오페라는 18세기와 19세기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이요, 영화는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복합장르다.

둘 다 문학, 역사, 신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더 많은 여러 분야를 더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간다. 물론 과거의 제약이었던 오페라는 이제 영화에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이 현실이다. 다행인 점은 아직도 영화에서 오페라의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페라 영화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우선 오페라 그 자체를 영화로 찍는 것이 있겠고, 오페라의 줄거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의 뼈대로 이용하고 그 음악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오페라 가수를 주인공으로 삼은 경우도 전형적인 오페라 영화다. 물론 가장 흔한 케이스는 오페라 아리아나 중창이 영화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것들이지만 진정한 오페라 영화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필자에게 최고의 오페라 영화로 기억되는 것들은 오페라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거나 오페라의 이야기 구조를 절묘하게 차용한 경우에 있다. 그런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1. 오페라 청교도-시애틀 오페라 실황
2. 베르너 헤어초크와 클리우디아 카르디날레, 클라우스 킨스키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피츠카랄도>(1982)

독일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초크의 독일-페루 합작 영화 <피츠카랄도>는 오페라를 영화로 만든 것도 아니요, 오페라의 구조를 차용한 것도 아니며, 위대한 작곡가나 성악가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도 아니지만 오페라 사랑의 감동을 진정으로 일깨워주는 명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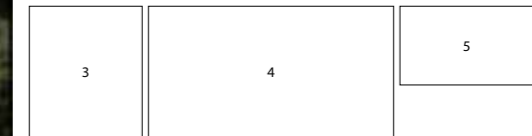
이 영화의 시대배경은 20세기 초엽, 장소는 특이하게도 페루의 아마존 강 유역이다. 아일랜드 출신인 피츠카랄도의 원래 이름은 피츠제랄드인데 이곳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자 라틴식으로 바꾸었다. 카루소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이 남자는 안데스 산맥 횡단열차를 놓으려다 실패하고 지금은 얼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페루 아마존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위대한 테너 카루소를 초청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큰돈이 필요한데 얼음을

팔아서 번 돈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유한 애인을 설득해서 낡은 증기선을 구입하고, 고무를 운반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고자 아마존 탐험에 나선다. 늘 축음기로 카루소의 노래를 틀어놓은 채 그 낭랑한 소리가 원주민조차 감동시키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급류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배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길을 닦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속담에서나 들어본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전무후무한 장면이 50분간이나 펼쳐진다. 피츠카랄도를 신이라 여긴 원주민들이 기꺼이 노동력을 제공한 덕분에 드디어 대역사는 성공한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렇게 엄청난 배를 강의 신에게 바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밧줄을 끊어버린다. 급류로 떠내려간 배는 여기저기 바위에 부딪혀 만신창

이가 된 채 출발지로 돌아와 버린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피츠카랄도! 다행히 망가진 배를 팔고 약간의 돈을 건진다. 그는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를 만든 베르너 헤어초크는 영화감독과 오페라 연출가를 겸한 오페라 광이다. 영화에서는 주로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피츠카랄도의 모델 역시 19세기 말에 실존했던 페루의 고무 거상이라고 한다. 강과 정글을 넘나들며 새로운 운송로를 개척하여 큰돈을 벌었지만 아마존 급류에 빠져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배를 산으로 올리려 했다든지, 오지에 혼자 힘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려 했다는 무모한 광기는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피츠카랄도에는 '오페라에 미친 남자' 헤어초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영화의 촬영 비화를 담은 다큐멘터리인 <버든 오브 드림즈>를 통해 이 영화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촬영하는 동안 엄청난 좌절과 고생을 감수해야 했는데, 예를 들자면 당초 주역을 맡은 제이슨 로바드는 심한 열대병에 걸려 영화를 절반이나 찍은 상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고, 결국 의사의 만류로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피츠카랄도의 조수로 출연한 팝스타 믹 재거는 일정이 지연되자 잔여촬영을 포기해 버렸다. 결국 클라우스 킨스키가 피츠카랄도 역의 대타로 나서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했고 남자 조역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제작비가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헤어초크는 320톤짜리 증기선을 산에 올리는 장면을 특수효과 없이 진짜로 찍겠다고 고집했고 덕분에 촬영일정은 지연을 거듭했다. 스태프와 원주민이 다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았으며 그토록 가까웠던 헤어초크와 킨스키의



3. 피츠카랄도의 이상 엔리코 카루소
4. 배에서 축음기를 틀 피츠카랄도
5. 산으로 올라가는 배

우에도 영화를 찍는 동안 벌어졌다. 헤어초크의 집요한 광기가 아니었다면 촬영은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다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얼마간의 돈을 손에 넣은 피츠카랄도는 이 돈을 어디에 썼을가? 진정으로 오페라에 미쳐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바로 오페라 공연이다. 피츠카랄도는 부근에 오페라단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고물 배에 초대한다. 아니,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판 것이고, 이날까지만 자기가 쓰기로 양해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는 배를 아마존에 띄워놓고 그 위에서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를 연주하게 한다. 음악가들이 선상을 꽉 채우고 있지만 관객은 달랑 피츠카랄도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시거를 문 채 노래를 듣는 빈털터리 피츠카랄도의 얼굴에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이 가득하다. 오페라하우스도 짓지 못했고, 카루소를 그 자리에 부를 수도 없었지만 추구하던 궁극의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이룬 것이니까. 오페라 팬이라면 이 마지막 장면의 감격에 가슴이 찡해질 것이다.

이 영화를 '광기 예찬'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피츠카랄도의 무모한 도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 영화의 다음 이야기도 쉽게 상상할 수 없으니 말이다. 엔딩 크레딧조차 없이 갑자기 암전(暗轉)하여 끝나버리는 걸 보면 모든 것을 잃고 한편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채로 세상과 이별을 고했음을 상징한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돈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다.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M. 버터플라이>(1993)
<M. 버터플라이>는 중국계 미국 작가 데이빗 헨리 황의 브로드웨이 연극(1988)을 바탕으로 한 영화

다. 원작자가 직접 시나리오도 썼는데, 이야기는 한국 전쟁 이후 중국에 개설된 첫 서구 외교기관이었던 프랑스 대사관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베르나르 부르시코와 중국 경극배우 시페이푸의 실화를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물론 인명, 신분, 시기 등에 있어서 픽션이 가미되었다. 배경이 된 사건에는 중국과 프랑스 사이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으나 영화에서는 서양 남자인 주인공 르네 갈리마르(제레미 아이언스)와 중국 경극배우 송릴링(존론)의 치명적인 로맨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방식의 호러 영화에 관심을 기울여 온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영화로는 이례적인 작품이었던 셈이다.

1964년 북경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회계담당관으로 부임한 르네 갈리마르는 푸치니의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를 특별 공연하는 중국 경극배우 송릴링에게 매혹된다. 아담한 체구에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송릴링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 르네 갈리마르는 아내가 있음에도 아담한 중국 여인에게 끌려 둘의 관계는 서서히 깊게 발전된다. 릴링은 르네의 연인이 된 다음에도 그의 앞에서 옷을 벗지 않는 등 특이한 면을 보이고, 르네 갈리마르는 그것을 동양 여자 특유의 보수적인 태도와 수줍음으로 이해한다. 어느덧 르네 갈리마르가 부영사로 승진하여 기밀서류에 관여하게 되자 릴링은 미국의 베트남 정책 등의 기밀정보를 빼낸다. 이윽고 프랑스로 돌아가게 된 르네 갈리마르는 자신의 아들까지 낳았다는 릴링과 헤어지게 된다.

이 영화에 모티브를 제공한 음악은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다.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세기 말의 일본을 배경으로, 나가사키에 주둔한 미국 해군 장교 핀커톤과 결혼한 겨우 15세의 게이샤 출신 일본 여인 초초의 이야기다. 그러나 핀커톤 입장에서 이 결혼은 잠시 동안의 향락이었을 뿐이다. 그는 몇



6. 오페라 마담버터플라이-미네소타 오페라
7. 스스로 M버터플라이로 분장한 갈리마르

달간의 나가사키 근무를 마치자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초초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둘러댄 핀커톤의 말을 믿고 3년을 수절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예고 없이 나타난 핀커톤은 미국에서 결혼한 '진짜 아내'와 함께 왔고, 게다가 초초가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 기대를 철저히 짓밟힌 초초는 사무라이였던 부친이 자결했던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른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주인공 갈리마르는 핀커톤, 릴링은 버터플라이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과 달리 진행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매력이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귀국 후 외무성을 나와 혼자 우편배달부로 살아가는 르네 갈리마르 앞에 릴링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다. 그런데 프랑스 첩보부가 르네 갈리마르를 체포하고 그는 재판정에 선다. 그는 그제서야 릴링의 정체가 중국 스파이이며 여장 남자였음을 알게 된다. 릴링은 중국과의 관

계 악화를 우려한 프랑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따라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그 시간, <마담 버터플라이>를 일인극으로 공연하겠다고 감옥 간수와 수감자들을 불러 모은 르네 갈리마르는 마치 오페라의 주인공 초초가 그런 것처럼 자결한다.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아이까지 빼앗겨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초초의 마음으로!

글 유형 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청취자의 입장에서 음악 자체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다.
 음파는 우리의 무의식을 꿰뚫고 정서를 파고든다.
 인간의 궁극적인 도약은,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Yehudi Menuhin 1972

수용음악치료법

- 1부. 조절음악치료(RegulartiveMusiktherapie) 소개
- 2부. 조절음악치료 1~2 단계의 이론강해
- 3부. 조절음악치료 3~4 단계의 이론강해
- 4부. 조절음악치료 5~6 단계의 이론강해

5부. 조절음악치료 실재를 위한 단계설명

조절음악치료법을 위한 실제

2014년 하늘다리 3·4호 '조절음악치료법의 입문'을 시작으로 5·6호, 7·8호, 9·10호에 이르기까지 '조절음악치료법의 총 6단계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제 실제 적용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음악의 선곡

실제에 들어가기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상을 위한 음악을 선곡하는 것이다. 치료사를 통해 참여자의 심리적 이슈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관련 음악을 선곡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선곡해 보자. 먼저, 음악의 장르는 가능한 클래식음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유는 개인의 감정이 순수하게 이입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음악은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덜 자극적이다. 예를 들어 Pop이나 가요와 같은 대중음악 또는 뉴에이지 음악이나 Jazz와 같은 음악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기보다는 음악에 심취하여 주도적인 흐름을 빼앗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또한 성악이 섞여있는 음악도 선곡에서 제외되는데 이유는 사람의 목소리가 감정적 호소력이 있어서 심리적 동화가 일어나면 내면의 집중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한 기억이나 회상과 관련된 음악도 선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따라서 조절음악치료법을 실행하기 위한 음악의 바른 선곡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내면의 활력을 제공해주고 외부나 내면으로 편중되지 않고 환경과 마음을 두루 섭렵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음악이다.

주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고전음악은 선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음악의 시간적 적절성인데, 입문자는 10분 내외의 곡을 선정하도록 하며 이후 20~30분 정도의 곡을 선정하여 실행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음악의 기능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음악 감상을 통한 심리적 회복이나 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악을 들으면서 현재 기분을 전환시키고 잠시 현실을 잊고자 하는 도취적 감상이나 또는 내면의 분쟁이나 갈등을 덮거나 잠재우려는 도피성 감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 속에서도 치유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음악으로 환기시키고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을 유도하며 활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음악의 사용은 단순한 '해소'적인 차원의 치료의 단계를 벗어나 '해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인격의 내적 문제들을 통찰하고 직면해 보는 과정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따라서 이 치료법에서 음악은 안정과 이완을 위한 기능과 더불어 가장 큰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음악과 대면할 수 있다.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어 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음악을 대면하는 그 시간흐름 속에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과 너무나도 유사한 여러 가지 관계체험들이 일어난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 곧 음악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이 시간의 개념 속에 있고 생활이 곧 시간의 연속적 흐름으로 볼 때, 모든 관계 또

한 음악과 같이 시간 속에 연관되어 있다. 결국 음악은 심신의 이완, 즉 균형을 제공해 주며, 대상(자)의 역할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우리 내면의 반응을 야기하여 직면하도록 해주고, 나아가 대상(자)과 내면과의 관계성을 이해하여 통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제 선곡한 음악을 듣자

음악을 듣는 자세는 가능한 균형을 잡은 편안한 자세면 좋겠다. 의자에 앉아 상체의 중심을 약간 뒤로 하고 양발은 땅바닥에 놓고 팔과 손은 양쪽 허벅지 위에 살며시 내려놓는다. 누워서 실행하는 것은 신체 지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지양하며, 과정 중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며 변화를 줄 수 있다. 눈은 큰 불편함이 없는 한 감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듣는 마음의 태도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방어적 태도(도망, 회피, 갈등, 변화하고픈 마음, 참고 견딤)를 수용하고 3개 대상범위(신체, 생각과 느낌, 음악)에 어떤 것들이 지각되는지 자신을 내 말기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1단계 환경에 온전한 접촉을 위한 방어물 및 저항 이해하기 (부정적 요소를 인정하기)

첫 단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무감이나 당위적인 행동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에서 해방해야 한다. 이유는 이런 당위적 사고가 음악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음악을 들

으면서 1.내면의 상태를 잘 지각하고 2.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3.신체의 느낌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다.

2단계 환경에 온전한 접촉에 방해되는 내면의 문제를 세밀하게 찾아보기(인정하는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3개의 영역을 지각하고 알아차림 하는 과정에 편중된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실행과정에 적응이 되어 가는 이번 단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유는 구체적인 지각된 사안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지식부족과 단편적인 신체적 지각, 그리고 내면에 제한된 알아차림의 내용이 자괴감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실행하다 보면 참여자 자신이 알아차림 하는 영역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항상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아~! 왜 내가 매일 접촉하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까?”, 또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등으로 점진적으로 알아차림의 영역의 넓이와 깊이가 확장된다.

3단계 내면 감정의 반응을 주시해 보고 표현하기

1~2단계를 통해 확장된 알아차림 내용들 중에 정서적 반응에 보다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표현해보는 단계이다. 음악을 통해 반응된 내면의 감정들을 살펴보고 표현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이 된다. 즉 하나의 대상으

로 여긴다는 것은 있는 실체 그대로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 과정을 혼자 실행할 경우 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공감의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낮추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얻는다. 직면을 통한 통찰은 차원을 높여가며 또 다른 알아차림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까지 지각하지 못한 정신-생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관찰하지 못했던 감정반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얻게 된다. 모든 인격성숙의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듯 이 단계에서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나 직면은 가능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감정반응들로 인해 다시 퇴행하는 경우도 있다.

4단계 ‘받아들이는 내면의 반응’과 ‘받아들이지 않은 내면의 반응’에 대한 구분 및 표현하기

이 전단계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점은 유기적인 원만한 관계의 제한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체는 자신의 내면욕구와 외부의 요구가 상충되는 선택의 과정에서 매번 충족된 결과를 남기는 어렵다. 이런 연고로 개체는 스스로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제한된 환경 접촉이 일어나고 그로인해 왜곡된 관계성이 형성된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관계로 생산된 내면의 부분들을 구분해 본다. 결국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반응은 쉽게 알아차림되며 어려움 없이 인정하지만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못하는 것들은 왜곡되고 제한된 관계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특히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지각된 것과 자신 내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반응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압축할 수 있다.

- 내면반응의 회피(도주, 도망)
- 내면반응과 싸움(대결, 대질)
- 내면반응에 인내(참음, 견딤)

5단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각’에 대한 정확한 관찰 촉구하기

이번 단계에서는 4단계 ‘저항의 내면반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심리행동 전략 단계이다. 여기에 2가지 전략이 소개된다. 먼저, 1전략은 심리적 문제점, 즉 내면의 장애적 체험이나 증상영역을 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는 것이다. 2전략은 1전략과 반대로 지각의 영역을 보다 더 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있을까?”로 다른 영역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가면서 문제영역들을 다시금 살펴 보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자신의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역설적인 전략기법이다. 음악을 듣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불편, 불쾌, 불안, 의심, 괴리, 이탈, 다른 생각 등 저항이 밀려올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6단계 긴장의 조절과 불안의 허용을 위한 의식적인 행위 전략의 활용 촉구하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과 갈등, 내면정

신 및 사고 행위양식 등, 전체적인 조망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자발적인 논쟁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기틀을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종종 아주 예민한 주제들이 화두에 오를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자연사(Sterben), 사고사(Tod)), 삶의 의미, 노화문제, 부부문제, 자기극복, 삶의 질, 관계문제 등. 실행을 통해 직면하는 과정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전문심리치료사나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공유하여야 한다.

심리회복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리치료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이다. 즉 다른 인격체를 통해 공감을 받는 것이라 하겠다. 공감이 치료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항상 자신의 존재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바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이며,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것은 나의 존재가 타인으로부터 바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이다. 공감은 바로 상대방의 존재를 바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치료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공감은 상대와의 유기적인 관계적 교류양상으로 발전하여 개체가 갖는 문제적 요인이나 행동, 또는 장애를 발견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감행하도록 인도하게 된다.

즉, 공감과 교류가 심리적 회복과 치료에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늘 제한된 환경과의 접촉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항상 나

랑 맞는 사람과 대면하고자 하고, 길을 가는 데에도 늘 보는 것만 보며, 식사를 할 때에도 노상 익숙한 음식에만 수저가 간다. 우리에게 현재 시공간에서 제공되는 환경은 항상 열려 있다. 심신의 건강은 개체가 어느 무엇이나, 어느 누구와도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저항과 방해 없이 접촉하는 것이다. 음악은 이미 설명한 바, 시간의 흐름 속에 인격적인 대상의 역할로 우리가 갖는 현존의 감정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음악과 함께 관계 속에서 교류하며 개체의 관계적 특성이 어떤지를 알려주며 깨우침을 제공해 준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음악을 통해 우리가 아무런 부담과 저항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접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 하 준 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문화사업

60 . . . 공연 <시티비트>

62 . . .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64 . . . 2014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꼬마 작곡가>

66 . . . 공연장 에티켓

2014년 여름 대한민국을 힙합 비트의 세계로 몰들였던 'ILLIONAIRE RECORDS'의 The Quiett, Dok2, Beenzino와 기리보이가 안산을 들썩이게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콘서트 티켓가격으로는 파격적인 단돈 1만원(청소년)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가장 Hot한 그들과
Hot한 Beat와 함께
뜨거운 Friday Night를 즐겨보자**

City Beat Friday Night


얼마 전, 인기리에 시즌2를 마친 M.net <Show me the money>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더콰이엇과 Dok2는 그동안 언더 힙합신과 마니아층에서는 독보적인 길을 걸어왔다. 공연위주의 행보를 걸어왔던 그들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힙합신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그들의 출연으로 대한민국은 힙합이란 장르가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만의 독특한 'swag'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Dok2는 2005년 다이나믹 듀오 2집 앨범 참여로 정식 데뷔했으며, 당시 15세의 나이로 랩 피처링과 곡의 프로듀싱을 도맡아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곧이어 팀 '올블랙'으로 활동하다 솔로로 전향했으며 2009년 에픽하이가 설립한 레이블 'Map The Soul'을 거쳐, 2011년 The Quiett과 함께 힙합 레이블 'ILLIONAIRE RECORDS'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왕성한 작업량으로 현재까지 발표한 앨범이 15장에 달하며, 특히 서던 힙합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뮤지션이다.

Dok2과 함께 'ILLIONAIRE RECORDS'의 수장인 The Quiett은 2003년 힙합신에 등장, 200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당시 신을 대표하던 레이블 '소울컴퍼니'의 핵심 멤버이자 메인 프로듀서로 활약했으며, 힙합계 전반에 걸쳐 무수한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했다. 2011년 Dok2와 힙합 레이블 'ILLIONAIRE RECORDS'를 설립해 독자적인 음악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규 앨범 4장을 포함해 11장의 앨범을 발표한 가운데 정규 2집 <Q Train>은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힙합 앨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서울대 출신의 래퍼, 여성 힙합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Beenzino는 2009년 래퍼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힙합신에 등장해 단숨에 최고 MC의 대열에 합류하고, 프로젝트 팀 Jazzyfact, Hot Clip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11년 6월 'ILLIONAIRE RECORDS'에 합류했으며, 이듬해 신의 큰 기대 속에 발표한 첫 솔로앨범 <24:26>은 평단과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았다. 이후 발표한 싱글 <Dali, Van, Picasso>와 EP앨범 <Up All Night>까지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Beenzino는 힙합신에 전례 없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1년 디지털 싱글 앨범 'You Look So Good To Me'로 데뷔한 기리보이 역시 M.net <Show me the money>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올라간 대표적인 홍대 언더그라운드 래퍼이다. '길이 보인다'는 뜻의 기리보이는 홍대 언더그라운드 출신의 잘생긴 외모에서 뿔어져 나오는 막힘없고 직설적인 랩으로 힙합신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괴물래퍼 Swings와 CJAMM과 더불어 Just Music의 대표 래퍼이며, 최근 NS윤지와 함께 발표한 '설렘주의'가 큰 인기를 끌며 뮤지션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과 함께 힙합 Beat로 안산의 관객들을 사로잡을 그들을 만나려면 11월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을 찾으시면 된다. 



쌀쌀한 가을, 달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창작 뮤지컬이 안산을 찾는다.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넘쳐나는 로맨틱 코미디물도 아닌, 유명한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도 아닌 창작 뮤지컬 한 편이 있다.

자극적인 소재의 공연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없이도 재미있고 감동있는 뮤지컬이 얼마든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은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가족 단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나이불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로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뮤지컬로 오해를 사는 해프닝도 벌어질 만큼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극장을 찾은 초등학교생들까지도 또래의 정신연령을 가진 슈퍼맨 '우현'을 보며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있다.

약간 모자라지만 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다니는 '우현'역에는 지난 2013년 초연에도 함께 했던, 뮤지컬 <프리실라>와 <젊음의 행진>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이며 오빠부대를 몰고 다닌 잘생긴 배우 '우찬'과 큰 키에 순수한 외모를 가진 유승현, 이찬후 배우가 캐스팅 되었고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역척스럽게 살아가는 씨니 역으로는 홍민아, 이설, 손예슬 등 대학로를 대표하는 미녀 3인방이 분한다.

까칠한 매력의 도현 역에는 지난 2013년 도현으로 분하며 <달을 품은 슈퍼맨>의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육현욱과 새로운 얼굴의 김동현, 강대운이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화려한 춤 솜씨로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시즌 함께 했던 손성민, 김해정, 이현진, 안창용, 황호진 배우와 극단 학전에 뿌리를

두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윤성원, 최연동 배우, 그리고 이세나, 맹상렬 배우가 함께 한다.

>> 작품 줄거리


두 아들과 함께 달동네에 살며,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 엄마. 태어나자마자 떨어져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첫 아들 우현이. 둘째 아들 도현은, 제대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빈둥대며 기타만 잡고 살며 형을 무시한다. 한국 여대 강사이자, 한국의 모습을 찍는 사진작가인 일본인 도요타와 배우의 꿈을 가진 서울대 졸업생 안경은 문 타운에 함께 살며 도현의 가족과 식구처럼 지낸다. 어느 날, 학교를 다니며 돈을 벌기 위해 보성에서 올라온 씨니가 도현의 집에 세 들어 살게 되고... 한국 여대 밴드 페스티벌에서 1등을 하면 상금 500만원을 준다는 사실에, 씨니는 함께 할 멤버를 찾지만 쉽지가 않다. 이런 씨니에게 과연 슈퍼맨처럼 누군가, 나타나 줄까?

지쳐있는 일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위로가 필요하다면!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다면!

불안하기만 한 미래로 힘이 들어도 희망을 찾고 있다면!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움츠리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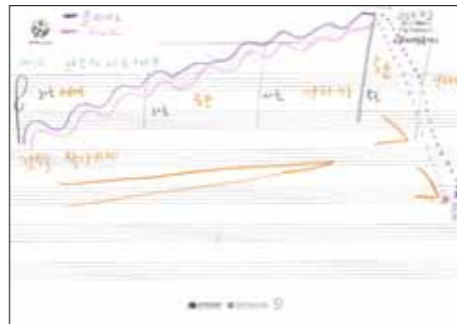
순수한 미소로 웃음을 선사해 줄 슈퍼맨을 만나러 가 보자! 

몸으로 표현하는 리듬,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만의 음악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작곡가〉

뜨거운 여름, 태양이 내리쬐던 8월의 둘째 주 토요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 로비에 꼬마작곡가의 첫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날씨 때문인지 별경게 달아오른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수업을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 묻어나 있다. 아이들이 설렘을 안고 기다리는 건, 지난해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뉴욕필하모닉의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전국 4개 기관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 되면서 안산에서도 꼬마작곡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참여 신청률이 모집정원의 4배에 가까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과 큰 기대감을 보였다.

〈꼬마작곡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꼬마작곡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창작 교육 프로그램이다.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은 현재 안산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안산은 아동 대상과 함께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첫 시범 운영하며 가족의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 음악이다!

꼬마작곡가는 정형화된 작곡의 기법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움'을 통해 나만의 곡을 완성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음악교육이나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아이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론적 개념과 스킬만을 습득하는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상상력과 풍부한 감정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가는 창작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있다.

리듬서클, 귀의 판타지, 악기 인터뷰, 박자로 감정표현하기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악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소리를 찾아 음악으로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선지에는 음표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주제에 따라 나의 이야기와 감정들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며 꿈다락 선생님과 함께 주제에 맞는 멜로디를 찾고 음악으로써 표현하게 된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족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참가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음악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악기인터뷰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실제로 다뤄보고 연주 소리를 경험하며 연주자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오는 첼로 소리로 들려주세요~” “말이 빠르게 달려가는 소리를 퍼커션으로 연주해 주세요” 등의 악기별로 원하는 멜로디의 연주를 부탁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곡에 어느 악기를 사용할 것인지, 악기별로 어떤 멜로디를 담당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15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나만의 곡'은 11월 30일(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에 의해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탄생한 〈꼬마작곡가〉들의 멋진 음악을 기대해 본다. 



사진제공 : (주)피리비주얼엔터테인먼트

공연장 에티켓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 문화공연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수월하고 풍성해진 요즘, 누구는 마니아로서 또 누구는 일상의 고단함을 벗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자 문화 향유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01. 휴대용 전화기 전원을 꺼주세요!

공연장은 모든 사람들이 귀와 눈을 한껏 열어놓고 있는 곳입니다. 소리가 날 만한 물건은 공연장에 가져가지 않거나, 전원을 꺼 놓는 것은 어디서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02.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해주세요!

공연이 시작되고 공연장에 입장이 제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에 늦게 된 경우라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객석에 착석하면 됩니다. 만약 자신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된다면 일찍 온 관객들을 비롯한 무대 위의 배우들에게도 실례가 될 수 있으니 타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자세를 낮춰 입장하면 됩니다.

03. 간직하고 싶은 공연이라도 촬영은 금물!

공연 중의 촬영은 저작권의 침해와 더불어 무대 위 배우 및 연주자들의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촬영을 해야만 한다면 공연장과 협의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04. 지나친 애정표현은 공연 후에!

사랑하는 연인 또는 부부들의 애정표현도 공연장에선 잠시 미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공연장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관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뒷사람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공연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 박수는 언제 쳐야 하나요?

훌륭한 연주나 연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흔히들 박수로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박수는 곡의 시작과 끝, 잘 모를 경우 지휘자 및 연주자 또는 연기가 인사할 때 치면 됩니다. 아울러 공연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연주자가 마지막으로 퇴장할 때까지 아낌없이 갈채를 보내주세요.

Tip. 전시실 관람예절은 이렇게!

01. 대부분의 전시장 입구에는 안내전단(팸플릿)이 놓여있으니 전시장 안내도로 이용해보세요.
02. 작품 관람은 천천히 1~2분간 한 작품 앞에 서서 전체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03. 인상적인 작품을 발견했을 경우라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기본예절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지켜주신다면 당신은 이미 문화인입니다. 



NEWS

68 · · · 단원미술관 겨울기획전

70 · · · 단원 김흥도와 떠나는 예술여행 후기

74 · · · 단원미술관 전시일정

한문연 자체기획 전시프로그램 선정전시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vol1.

〈복제품들 : Nonfiction of Fiction〉展

전시기간 : 2014. 12. 2 ~ 12. 22

전시장소 : 단원미술관 영인본관

〈복제품들:Nonfiction of Fiction〉展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자체기획 전시 지원사업에 선정, 한국화의 실험적인 확장을 통해 단원 김홍도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이에 한국화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는 시리즈 전시의 첫 번째로, 한국화의 변용과 가능성에 대해 단원의 실험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최해리 展으로 마련된다. 작가 최해리는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미,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낸다. 고전이 된 작품이나 미지의 작가의 작품을 인용하고 복제하여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 프로젝트를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설치물인 ‘팩션 인스톨레이션(Faction Installation)’이라 명명한다.

최해리는 미술품을 신고 가다 좌초된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공의 인물이 수집한 동양화 작품을 전시하고 가상의 박물관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이 같은 작품의 성격에 착안해 김홍도의 영인본 작품을 전시하는 단원미술관 영인본관과 최해리 작가의 작품과의 만남을 이끄는 전시를 통해 ‘복제본’과 ‘원본’에 대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또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만들어 내는 이야기는 현실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작품을 일종의 ‘레플리카’로서 구현해 허구의 이야기와 뒤섞어 현실과 경계에 질문을 던지는 최해리 작가의 작업을 통해 현대와 전통, 원본과 진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단원미술관 전시에서는 김홍도의 복제본 작품을 전시하는 영인본관의 특성과 접목하여 심사정, 신사임당 등의 고전이 된 작품에 허구의 이야기를 가미시



키고 모사, 고전을 재해석하고 절대적인 미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비평과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음악 사운드아티스트와 DJ,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미술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자 한다.

단원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시각과 작품에 주목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기획전시를 지속, 단원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역량 있는 신진작가의 작품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콘텐츠와 접목시킨 연속 기획으로의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단원미술관 기획전


〈마음의 기억: Memories in my Mind〉展

전시기간 : 2014. 12. 18 ~ 2015. 1. 31

전시장소 : 단원미술관 1관

마음의 기억전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됐다. 마음 속 내면을 내밀히 들여다보고 소리, 물질 등을 통해 관람객의 마음을 만지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현대미술작품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마음을 돌아볼 틈도 없이 수많은 사건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미술을 통해 잊고 있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해보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또 상처 입으며, 나 자신을 잊은 채 외부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번 전시는 마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임을 다양한 장르의 작품 속에서 경험케 할 것이다. 



‘2014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을 마치며...

지난 6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8회차에 걸쳐 진행됐던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의 여정이 모두 끝났다.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은 김홍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예술기행 프로젝트로 올해는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등 김홍도의 그림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주요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의 답사로 진행됐다.

특히 간송미술관의 첫 외부전시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간송문화전> 관람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수원화성과 용주사, 안동의 체화정과 병산서원 탐방은 당시 김홍도와 사대부와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지난 2005년 화마로 손실되었던 천년고찰 낙사사를 방문하여 복원에 사용된 김홍도의 ‘금강전도’를 직접 비교 감상해 볼 수 있었고

<병진년화첩>의 배경이 된 단양지역을 찾아 시정이 넘치는 김홍도 산수화만의 멋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단원의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원에 대해 배우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우리 고장, 안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음은 8회차에 걸쳐 예술여행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단원미술관 카페에 게시한 후기 중 몇 개를 간추려 소개해 보기로 한다(지면상 모든 내용을 다 실지 못했는데 원문은 단원미술관 김홍도카페 <http://cafe.daum.net/danwon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 단원 김홍도 첫 번째 여행 후기

- 최진 님(예은 · 하은맘)

날씨도 너무 예뻐던 6월 5일 아침. 지인의 소개로 급하게 신청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랑 함께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창덕궁 후원 나들이... 단원미술관에서 준비한 팸플릿이며 안내자료 등이 잘 되어 있어 시작부터 감동이었습니다. 또 딸이랑 좋은 추억을 쌓았고요. 다음에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3회차 - 해운정, 낙산사를 다녀와서

- 남정림 님

맘먹어야 갈 수 있는 곳을 다녀왔다. 열심히 세 시간 이상을 달려 초당두부로 일단 배부터 호강했다. 이후 수많은 명사가 머물러서 눈앞의 경포대를 조망하며 사색했던 해운정 뒷마루에 앉아 김홍도 선생님의 스케치 여정을 상상해봤다. 임금님의 명이라 부담스러웠겠지만 행복했을 거다. 다시 서둘러 낙산사로 향했다. 화재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리라. 그래도 나름 잘 정비가 되어있었다. 낙산사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가 그림이다. 의상대에서 맞본 시원한 바람은 혼자 즐기기 미안했다.



4회차 – 안산객사와 리움미술관

- 신혜순 님

첫 번째 기행은 안산객사. 객사란 조선시대 관의 건물 중 하나로,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신 곳은 안산객사가 유일하다.

두 번째 기행은 리움미술관. 리움은 미술관이 아닌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유물과 보물들이 이곳에 있다. 다시 가볼만한 곳 중 하나라 생각하며, 안산에 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을 보았으면 한다.



5회차 – 수원화성, 용주사를 다녀와서...

- 오미영 님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단원예술여행을 신청했다.

역사 교육을 위해 오랫동안 예술여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7회차 – 병산서원에서 선비문화 체험을 하다


- 그림사랑 님(이복선)

7회차 단원과 떠나는 예술여행으로 안동 체화정과 병산서원을 찾았다. 유림의 도시 안동 병산서원 교육담당 유사님의 모습에서 느꼈던 그분의 안동사랑. 훌륭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안동인의 자부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단원의 고장 안산인으로서 단원을 좀 더 깊이 제대로 알고 많은 이들에게 안산을 알리고 단원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예술여행 후기로 약속해 본다. 감사드립니다.



8회차 – 단원과 떠나는 예술여행, 단양을 다녀와서

- 김순영 님

제목처럼 단원과 함께하는 예술여행을 한다 하니 김홍도라는 천재화가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오늘 여행길이 사뭇 기대된다. 이번 단원과 함께 떠나는 예술여행은 단원절세보첩 20폭 중에 옥순봉도와 사인암도, 도담삼봉도를 보았다. 오늘 함께한 친구가 있어 행복했고 미리 준비하고 감사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원미술관 11-12월 전시일정

월	전시회	일정	장소	주최	문의
11 월	2014 단원미술제 미술부문 수상작전	10. 24 ~ 11. 8	전관	(재)안산문화재단	031-481-0503
	대한민국서예술대전	11. 10 ~ 11. 16	전관	대한민국서예술협회	02-324-8043
	공감전	11. 17 ~ 11. 23	제1관(1전시실)	공감회	010-5063-2730
	푸름회전	11. 17 ~ 11. 23	제1관(2전시실)	푸름회	010-2634-7305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전	11. 17 ~ 11. 30	제2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본부	031-481-2795
	예여울전	11. 24 ~ 11. 30	제1관(1전시실)	예여울	010-4645-3059
	삼거리화실전	11. 24 ~ 11. 30	제1관(2전시실)	삼거리화실	031-481-2398
12 월	미담전	12. 1 ~ 12. 7	제2관	미담전	010-3519-5274
	한국화의 어울림과 색다름전	12. 8 ~ 12. 14	제2관	안산미술협회	031-414-2890
	단원미술관 겨울기획전	12. 18 ~ 1. 31	제1관	(재)안산문화재단	031-481-0505
	휴속에 바람결에전	12. 15 ~ 12. 21	제2관	윤석응	011-305-5881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 - □□□□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1. 1~2014. 12. 10

안산시우체국
제206호

하늘다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4 2 5 - 9 0 6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총 **330,739,886**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컴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땀따라', 안산도시개발(주) (주)크레디아인태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운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박스캠프, 켈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충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권옥숙SRM, 최민석, 거룡전력(주) 홍희성

독자설문

1. <하늘다리> 11+12월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2. <하늘다리> 2015년 01+02월호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3. 안산문화재단에서 보고싶은 공연은?
4. 그밖에 <하늘다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5. <하늘다리>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7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